



삼성전자, Y2K해결 프로그램 PC통신서 무료 제공

삼성전자(대표 윤종용)는 PC 하드웨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컴퓨터 2000년(Y2K)문제를 검증,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SD2000.EXE 버전20」을 개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삼성전자는 현재 「SD2000.EXE」 프로그램을 자사 홈페이지(www.sec.co.kr)와 유니텔 등 4대 PC통신자료실(GO SEC)을 통해 무료로 공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Y2K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출시된 지난 95년 12월 이전 삼성전자 PC모델에 대한 Y2K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 개발한 프로그램이 PC하드웨어 자체만의 Y2K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사용자의 응용프로그램내에 존재할 수 있는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데이콤, 인터넷폰 요금 인하

데이콤(대표 박치영)은 다음

달 1일부터 자사의 인터넷 국제전화인 「이코노폰 서비스」의 요금을 대역별로 최고 23%까지 인하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표준시간대 국가별 1분당 통화료는 미국이 3백60원에서 3백30원, 일본이 4백8원에서 4백2원, 중국은 8백76원에서 8백52원,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9백96원에서 8백40원으로 인하됐다.

독일과 프랑스는 7백56원에서 5백82원으로 23% 인하돼 일반국제전화에 비해 41%에서 65%까지 저렴한 요금으로 국제전화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지역별로는 동남아와 미주국가가 1~3%, 유럽지역은 12~23%,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지역은 13%에서 17% 인하됐다.

데이콤 인터넷전화 이코노폰 서비스는 가까운 외환은행이나 인터넷 온라인 쇼핑몰 인터파크(www.interpark.com)에서 1만원에서 5만원까지의 선물카드를 구입한 후 접속번호인 00306을 누르고 이용하면 된다.

데이콤 관계자는 『기업고객의 경우 이코노폰 교환기와 고객의 사설교환기 혹은 키폰을 전용회선으로 직접연결해 국제전화를 이용할 수 있는 이코노폰 직접

접속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통신, 국제전화 선불카드로 인터넷폰 서비스

한국통신(대표 이계철)은 국제전화 선불카드인 월드폰플러스카드를 구입하는 이용자에서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인터넷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최근 밝혔다.

한국통신은 지난 4월부터 후불카드인 KT카드 회원을 대상으로 인터넷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조치로 선후불카드 모두를 이용하여 인터넷폰 이용이 가능하게 됐다.

월드폰 플러스카드를 통해 한국통신 인터넷폰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00721(월드폰카드 접속번호)+카드번호+090+국가번호+지역번호+전화번호#」를 누르면 된다.

월드폰 플러스카드란 전화국이나 한국통신 위탁판매점에서 구입하여 국내의 모든전화기에서 국제전화를 걸 수 있는 국제전화전용 선불카드로 5천원권, 1만원권, 3만원권, 5만원권 등이 있다.

LG정보통신, 별정통신 시설교환기 공급 확대

LG정보통신(대표 서평원)이 국제전화 별정통신사업자를 겨냥한 시설교환기 공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LG정보통신은 최근 음성재판매 및 인터넷폰 별정통신업체인 서울국제전화에 시설교환기를 비롯한 각종 통신장비를 공급했다고 밝혔다.

또한 LG정보통신은 서울국제전화에 갖추고 있는 인터넷폰 게이트웨이시스템 등 국제전화망과 접속할 수 있는 시설교환기(스타렉스ACS)와 자동음성처리

시스템(VIPSHD), 가입자 과금처리 애플리케이션 등을 공급, 국제전화 서비스가 가능한 통신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LG정보통신은 이번 서울국제전화 시스템 구축을 계기로 본격 상용서비스를 서두르고 있는 여타 사업자들을 대상으로한 별정통신용 시설교환기 등 시스템 공급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대우통신, 러시아서 교환기 개통

대우통신(대표 유기범)은 최

근 러시아 로스토프주 볼고든스크시에서 김진찬 부사장과 순그루프 볼고든스크 체신청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사가 공급한 대용량 교환기 1만1백회선의 개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대우통신은 총 12만회선 용량의 도시형 전자교환기(TDX)를 이 지역에 공급, 우선 사용될 1만1백회선을 개통했고 추후 볼고든스크시의 요구에 따라 회선량을 늘려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개통한 교환기는 지난해 8월부터 11개월에 걸친 설치공사 및 시험통화를 성공리에 마무리하고 상용서비스에 돌입하는 것으로 시내 및 시외 교환용으로 사용 가능하고 디지털 가입자까지 수용, 디지털종합통신망(ISDN)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다.

대우통신은 이를 계기로 독립국가연합(CIS)에 대한 교환장비 수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기존 우즈베키스탄 및 우크라이나의 교환기 합작공장 외에 올해안에 러시아지역에도 합작공장을 설립, 연간 2백만회선 이상의 교환기를 생산해 수출키로 했다.

삼성SDS, 제소자에 PC교육 혜택

삼성SDS(대표 남궁석)가 최근 안양교도소에 PC 12대와 프린터 등을 갖춘 컴퓨터 교육장을 설치해 주고 제소자를 대상으로 주 2회 PC교육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3년간 실시해온 소년원생 PC교육의 성과에 힘입어 교도소까지 확대한 것으로 1차 교육과목은 윈도, 워드프로세서, PC활용, 엑셀 등이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교도소 PC교육 실시를 통해 재소자들도 보다 다양한 정보를 쉽게 접함은 물론 밝은 꿈과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LG-EDS · 한국능률협회컨설팅, ERP분야 전략적 제휴

LG-EDS시스템(대표 김범수)과 컨설팅 전문업체인 한국능률협회컨설팅(대표 신영철)이 전사적자원관리(ERP) 분야의 시스템 제공 및 기술 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 최근 전략적 제휴 조인식을 가졌다.

이번 전략적 제휴는 정보기술(IT)을 이용해 컨설팅사업을 강

화하려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측과 ERP패키지인 EMS를 기반으로 제조업 분야에 진출하려는 LG-EDS시스템의 입장이 일치해 성사됐다.

이에 따라 LG-EDS시스템은 능률협회컨설팅의 영업력을 활용해 EMS패키지에 대한 신규 수요를 창출하고 ERP 관련 SI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두루넷,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개통 의미

두루넷이 최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정보통신업계 관계자 4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레인보우서비스 개통식을 가짐에 따라 우리나라도 이제 본격적인 초고속 인터넷서비스가 통신서비스의 중심축에 서게 됐다.

특히 두루넷에 이어 한국통신이 비대칭 가입자회선(ADSL)을 통한 초고속 인터넷서비스를, 한국통신과 삼성SDS가 위성 인터넷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어서 관련시장도 경쟁체제에 접어들 전망이다.

7백50Mbps의 전송대역폭을 갖는 케이블TV 가입자망을 통해 서비스되는 레인보우서비스는 기

존 전화선의 1백배 이상인 10Mbps의 전송용량이 강점이다. 기존 인터넷 및 PC통신서비스에서는 구현되지 못했던 인터넷방송을 현장감있는 영상과 생생한 음질로 실시간 서비스하는 레인보우서비스는 전혀 새로운 개념의 차세대 인터넷서비스다.

뮤직비디오, 고품질오디오 등 콘텐츠의 주문형서비스, 나우누리 및 유니텔 등의 PC통신서비스, 각종 온라인 게임 등이 제공됨으로써 인터넷의 한계를 경험했던 인터넷 마니아들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두루넷의 레인보우서비스는 기존 서비스와 몇가지 점에서 차별화되고 있다. 먼저 케이블TV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전화비 부담이 전혀없이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존 서비스는 가입자에게 정보이용료와 전화비라는 이중부담을 안겼으나 레인보우서비스는 3만8천원(모뎀임대료 별도)만 지불하면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다.

두번째는 최대 1백배 빠른 전송용량으로 이는 각종 실시간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구현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특히 여러명

이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대전 게임이나 교육이 가능해 졌다.

사용 편리성도 강점으로 컴퓨터를 켜면 곧바로 연결되고 이를 통해 뉴스, 엔터테인먼트, 게임, 생활, 비즈니스, 인터넷, 컴퓨터 등 원하는 섹션에 들어가면 된다. 두루넷은 이를 위해 한국전력, 마이크로소프트와의 전략적 제휴외에도 서초, 중앙, 한강, 인천, 남동, 부산 및 경남8개 종합유선방송국(SO) 등 12개 SO와 사업협력계약을 체결했다.

뉴콤시스템, 지역상권 정보 무료 서비스

뉴콤시스템(대표 이문환)이 수신자부담(080) 전화를 이용해 지역 상권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무료 생활서비스를 개발했다.

최근 뉴콤시스템은 지역 가맹점과 해당지역의 소비자를 하나의 통신망으로 묶어 소비자가 무료로 지역상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마이콜」서비스를 개발하고 우선 서울 송파지역과 인천, 목포, 대전등지를 대상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